

가계재무관리의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맞벌이여부별 비교를 중심으로

Wife-Husband Role Division on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 Comparing Between Dual Income Household and Single Income Household

Texas Tech Univ.

박사과정 이 은 화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전공

교 수 양 세 정**

Texas Tech Univ.

Ph.D. Candidate : Lee, Eun-Hwa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

Professor : Yang, Se-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ife and husband role division in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between dual-income household and single-income household.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included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financial planning, consumption/expenditure management, savings/investment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credit management. Data for this research was collected through 610 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Korea. Using SAS-PC program, Chi-square and t-test Analyses were executed. The results showed that dual- and single-income households tend to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marital role division in household management. Wives of dual-income households had more significant roles in financial management rather than wives of single income households. Especially, wives of dual-income managed more active credit management and saving/investmen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wives of single-income households played a major role in making decision over cheap items than that of wives of dual-income household.

▲주요어(Key Words) :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맞벌이가계(dual-income household), 비맞벌이가계(single-income household)

I. 서 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여

왔다. 1980년 42.8%였던 것이 2005년 이후부터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2007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경우 56.2%이고, 40대 여성은 6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983만명의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 중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여성이 650만명으로 전체 여성취업자의 66.1%를 차지

* 이 논문은 이은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양세정 (E-mail : sjyang@smu.ac.kr)

한다(통계청, 2008). 이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참여의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진데 기인한다. 또한 가전제품의 보급과 간편해진 생활방식은 가사노동의 요구량을 줄어줄게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가계경제의 기본적 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다수의 연구는 맞벌이부부의 소비지출행태를 분석하였고(양세정, 1997; 정순희, 2000 등), 소득구조변화(김미혜, 1987; 양세정, 2000)나 저축행태 변화(양세정, 1998) 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가정경영학에서는 체계론이나 가족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재무관리와 재무만족에 대한 맞벌이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수행되었고(고보선·임정빈, 1998; 김정훈, 1997; 김현정, 1992; 김효정, 1999; 박미금, 1993; 양경아, 1992 등), 맞벌이부부의 경제주도권을 분석하기도 하였다(김정훈, 1997; 한지수, 1997).

맞벌이는 가계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시킨다. 문소정(1995)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맞벌이 층에서 부부의 소득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각자가 돈을 관리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에 권력관계가 평등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김정훈(1997)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는 맞벌이 가계에서 부부 공동 가계경제권자가 많이 나타나며, 재무관리적 측면에서도 자신의 비자금 확보, 총재산에 대한 파악 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여부에 따른 재무관리에 있어서의 부부간의 역할분담을 다루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맞벌이가계의 아내는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비맞벌이가계의 아내에 비해 가계 내 부부권력에서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정우·김규원, 1986; Blood & Wolfe, 1960). 따라서 맞벌이부부는 비맞벌이부부와는 다른 형태의 가계재무관리에서의 역할분담의 방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연구로는 1997년에 행해진 한지수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계만을 대상으로 재무관리를 일상적인 금전관리, 구매, 재무, 저축 및 투자 행동으로 구분하면서 측정방법에서 '아내', '부부가 공동으로', '부부가 따로따로', '남편'으로 측정하여 부부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공동관리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부부간 경제적 주도권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구체적 재무관리행동이나 부부간 역할분담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맞벌이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계재무관리행태에 대한 맞벌이여부의 영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관리를 ① 재무계획, ② 소득과 지출관리, ③ 저축 및 투자관리, ④ 위험관리, ⑤ 신용 관리의 5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부부간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지수(1997)와 Diane et al.(1993)의 연구를 참조하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부부간 역할분담측정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여 역할분담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즉 각 세부 재무관리행동들에 대해 '전적으로 아내'에서 '전적으로 남편'까지 5단계로 측정하였고, 각 세부 재무관리행동들에 대해 '부부 따로'와 '해당없음'을 구분하였다. 결국 각 재무관리영역별로 부부간의 역할분담 정도를 제시함으로써 가계운영자나 관련 기업들에게 구체적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관리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재무관리측정 방법의 한 형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실용성 있는 가계재무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관리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중 어떤 영역에서 공동의사결정과 개별의사결정을 하는지, 영역에 따라 공동의사결정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관련정보는 금융기관과 재무관련 교육기관 관련자에게 교육 및 영업 부문에 있어서의 고객업무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가계관리자들은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제공하는 재무관리의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맞벌이여부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는 맞벌이의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속적인 맞벌이가계의 증가와 가계 내 여성경제력의 증가와 함께 향후 가계재무관리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재무관리의 개념 및 측정

Fitzsimmons(1988)에 의하면 가계재무관리란 인간의 욕구 충족 즉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정문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연숙 등(2000)은 재무관리를 정의하기를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을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소비 및 보존하고 증대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기대하는 재정적 복지를 실현해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기춘 등(1998)은 재무관리행동의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존하여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하는 전 생애에 걸친 가정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점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 하였다.

재무관리행동의 측정은 재무관리의 시간흐름에 따른 과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영역별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대별되어진다. 재무관리행동의 과정은 재무관리행동의 시간적 흐름에

기초하여 계획 및 수행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측정되며, 재무관리의 검토와 평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계선자, 2000; 계선자·유을용, 1999; 이선형·이연숙, 1997). 이들 연구들은 재무관리 행동을 체계론의 과정요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과 수행, 평가의 차원을 측정함으로써 가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재무영역에 대한 행동들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일부 연구들은 재무관리행동을 영역별 행동으로 측정하고, 실제적인 관리행동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왔다. Parrotta와 Johnson(1998)은 현금, 신용, 위험, 은퇴와 유산, 자본축적, 재무관리 일반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배희선과 최현자(1996)는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 행동, 노후준비행동으로 나누어 재무관리정도를 측정하였고, 홍향숙과 이종혜(1999)는 개인, 가계,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면서 재무관리행동을 소득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영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정우와 정진희(1999)는 도시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를 살펴보면,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연금 자금문제 등 5개 영역을 주요문제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가계의 재무목적에 맞게 증대시키고 보전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실행부분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관리 행동은 재무계획영역, 소비 및 지출영역, 저축 및 투자영역, 위험관리영역, 신용관리영역으로 크게 구분되어지며, 이러한 5가지 영역을 통해 가계는 기대하는 재무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재무관리를 측정할 문항들에 대해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언제나 한다'에서 '항상 하지 않는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부간의 경제적 주도권을 연구한 한지수(1997)의 경우 재무관리 각 세부항목에 대해서 '전적으로 남편', '전적으로 부인' 등의 형태로 재무관리 영역별 주도권을 측정하였으며, 부부간 역할분담을 분석하는 본 연구 역시 유사하게 재무관리 영역별 문항에 대해 남편과 부인간의 역할분담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2. 부부간 역할분담 이론

가정경영학에서는 가계재무관리 연구의 틀로 체계이론이 자주 사용되었다. 체계론은 관리체계의 구성요소를 투입, 변화과정, 산출, 피드백으로 설정하며, 이 이론은 화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와 재무관리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체계의 구성요소

로서 재무관리행동은 다시 계획과정과 수행과정으로 구분되어진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의 하나로 고려되어져 왔다. 주부취업은 경제적 의사권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무지식의 확대로 인해 재무관리행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취업으로 인한 재무관리시간과 에너지의 감소는 주부로 하여금 재무관리행동을 줄일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김효정(2000)의 연구와 고보선과 임정빈(1997)의 연구는 주부의 취업유무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향숙과 이종혜(1999)의 연구는 취업여성이 전업여성에 비해 소득관리행동과 지출관리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채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ahl(1989)은 Edwards(1981)의 통제의 개념을 이용하여 부부간의 경제적 통제권과 경제적 권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가정에서의 경제적 통제란 가정경제생활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며, 부부가 어떤 금전관리방식을 선택할지, 어떤 배우자가 주요한 재정결정을 하는지, 부부의 돈을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 용도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한지수는(1997) 경제적 통제란 결국 경제생활주도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간주하면서 부부간 경제생활주도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상적인 금전관리, 구매행동, 재무행동, 저축 및 투자행동에 대해 부부간의 주도권을 평가하였다.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남편의 경제적 주도권이 강하게 나타난 영역에서는 의사결정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이론은 성별에 근거하여 역할을 규정한다는 이론으로 부모역할, 주부의 취업,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등에 성별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Barnett & Baruch, 1987: 김희순·최현자, 2000에서 재인용). 성역할이론은 소비자행동에서 가족내 구매 의사결정연구들에 적용되어졌는데,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매의사결정시 남편은 수단적 역할을, 아내는 표현적 역할을 주로 한다고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편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아내가 사소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분석결과가 제공되기도 하였다(문숙재·조성은, 1993). 이 이론을 가계재무관리에 적용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편이, 사소한 재무관리는 아내가 할 가능성이 있다.

자원이론에 따르면 부부 중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부간의 의사결정을 통한 권력행사를 많이 하게 된다.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부부간 의사결정을 통한 권력은 자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인이 가진 자원이 많을수록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가계가 많아 이런 경우 부부권력이 비슷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아내가 가진 자원이 많을수록, 고위직에 종사할수록,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여 이는 보다 권력이 평등한 것으로 해석 되어졌다(구선주 등, 1997; 김홍은, 1986; 손현숙, 1993; 이성희·김태현, 1989; 이정우·강기연, 2000; 이정우·김규원, 1986; 임정빈·김윤경, 1983).

3.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 분담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

부부간 재무관리행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재무관리 전반에 대해 부부간의 역할 편중이 어떻게 되며, 부부간의 역할 편중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Diane 등(1993)은 가계 금전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결정 영역을 가계 예산 설정, 수표계좌관리, 청구금액의 우선순위의 정하기, 각종 카드관리, 저축과 투자관리와 신용관리 등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10개 문항에 대해 '여자가 거의 결정하는지', '남자가 거의 결정하는지', '각각에 대해 구분하는지', '거의 함께하는지', 그리고 '해당없음'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아내가 거의 결정하는 영역은 수표계좌관리, 청구금액의 우선순위정하기, 은행카드관리, 상점카드관리였으며, 남편이 거의 관리하는 영역은 '모기지 범위를 정하는 일'이었고, 둘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은 '주택구매'로 나타났다.

Godwin과 Carroll(1986)은 남편과 아내의 재무관리태도와 행동을 각각 따로 구분하여 18개의 재무관리행동 중 얼마나 많은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아내는 평균 5.74개를 남편의 경우는 평균 5.58개의 재무관리를 하고 있어 아내가 약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참여한 재무관리는 '재무관리 장소 유무'로 아내와 남편 모두 80%가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아내의 75.3%는 '재무목표에 대한 논의'를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경우 '지출기록'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20년 후의 목표 기록'과 '가구목록 정리'로 4.1%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남편의 경우 '20년 후의 목표 기록'으로 1.4%만이 수행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수행율을 보였다.

김현정(1992)은 주부의 가계재정 의사결정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30대 주부를 대상으로 재무관리행동의 16개 문항을 보험, 투자, 구매, 저축, 예산관리, 신용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20%의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100% 만점이 되도록 측정하였다. 그 결과 주부의 재정의사결정의 참여도 평균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편에 비해 주부의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맞벌이여부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을 비교한 결과 저축행동에서 취업주부의 참여율이 비취업주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1997)은 맞벌이주부의 취업선호 인식과 가계관리권 유형에 따른 가계재정 의사소통 및 재정권력 평등도인지라는 연구에서 가계관리권을 경제권자, 금전관리자, 주요 재정결정자로 구분하였으며 '남편', '부인', '부부공동'의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경제권자와 주요 재정 의사결정자는 '부부공동'인 경우가, 금전관리자는 '부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재정관리유형은 부부가 함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위로는 영역을 정하고 지출하는 '영역관리 유형', '각자관리 유형'이었다. 주부취업과 가계 관리

권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가계의 경우 가계경제권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가 많았고, 자신이 경제권자인 부인은 남편이 경제권자인 가계의 부인보다 가계 총재산과 남편소득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한지수(1997)는 도시 맞벌이 부부의 경제생활주도권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생활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남편, 아내, 부부공동, 부부가 따로따로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금전관리 영역은 구매행동, 재무행동, 저축·투자행동과 일상적인 금전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11문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일상적인 금전관리 영역에서는 일상적인 생활비지출에 관련된 문항에서는 아내가, 신용카드사용은 부부가 각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미와 이기영(1998)은 자산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자산관리를 정보수집, 계획, 실행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저축, 투자, 세금과 관련된 재무관리행동의 23개 문항에 대해 '남편주도', '부부공동', '부인주도'의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계획단계에서는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보수집과 실행단계에서는 부인이 주도적인 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2003)은 중북가계의 재무관리 실태를 살펴보면서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채연기', '목돈마련상품', '규모 큰 지출', '대출결정', '금융기관 선택', '저축규모결정'에 대해 남편과 아내간의 결정권자를 살펴보았는데, '부부상의'를 한다는 경우가 금융기관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연기'는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가 33.7%로 남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목돈마련상품'과 '금융기관선택'은 아내가 결정한다는 경우가 각기 29.8%와 27.9%로 아내 역할이 가장 큰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관리의 부부간 역할분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특히 맞벌이 여부가 이러한 역할분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계재무관리에 있어서 부부간 역할분담 방법은 어떠한가, 이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계재무관리에 있어서 부부간 역할비중은

어떠하며, 이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가계의 맞벌이 상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맞벌이 가계로 보았다. 이러한 정의는 맞벌이가계의 여원이 부부가 함께 버는 것이라고 봤을 때 합당하며, 재무관리에 있어서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부가 취업을 했느냐 아니냐하는 것 보다는, 궁극적으로 아내의 소득유무가 관련이 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가 직업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소득 등의 아내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가계에 포함하였다.

2)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항목은 강수경(1984), 김현정(1992), 한지수(1997), Diane (1993) 등이 사용했던 관련설문내용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를 ① 재무계획 ② 소비 및 지출관리 ③ 저축 및 투자관리 ④ 위험관리 ⑤ 신용관리 등 5개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총 4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재무관리행동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재무계획에는 Diane(1993)의 연구를 토대로 가계의 예산 설정을 비롯하여 장·단기 재무계획 세우기를 중심으로 노후자금 마련, 주택마련, 목돈마련, 저축과 투자, 위험, 부채에 관한 계획 세우기를 항목에 포함하였다(8문항).

소비지출 영역은 우선 생활비지출에 관한 문항으로 가계부 작성과 서류보관의 관리영역을 포함하여, 자동차와 주택, 가구와 가전제품과 관련된 사항과 자녀의 교육관련과 남편과 자녀의 용돈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12문항). 저축 및 투자관리 영역은 김현정(1992)과 한지수(1997)의 연구를 참조하여 금융저축, 주식, 투자 채권과 관련된 9문항을 포함하였다. 위험관리는 각종 보험관련사항과 비상시 자금마련에 관한 8문항을 알아보았고(김현정, 1992), 신용관리영역에는 대출방법과 상환방법, 사채, 신용카드와 관계된 사항 등 10문항을 포함하였다(김현정, 1992; Diane, 1993).

부부간에 재무관련 사항 결정과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의 척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주로 아내'인 경우를 1점, '부부공동'을 3점, '주로 남편'인 경우를 5점으로 두어서 측정 하였으며(강수경, 1984; 김효숙, 1988; 손현숙, 1993; 윤태평, 1993; 이창규, 1994), 양경아(1992)와 김현정(1992)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주부)의 참여정도를 물어보았는데 '매우 그렇다(1)'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5)'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5점 likert척도의 경우 부부가 각자 따로 관리하는 경우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한편, 한지수(1997)의 연구에서는 '아내', '부부가 공동으로', '부부가 따로따로', '남편'으로 측정함으로써 부부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공동관리는 하는가를 구분하였으나, 부부공동관리의 경우 아내와 남편 중 누가 더 많이 재무관리행동에 더 큰 참여를 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졌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해당없음', '부부가 공동관리', '부부따로'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부부가 공동관리'일 경우 남편과 아내의 재무관리행동의 참여정도에 따라 '아내(1)', '아내가 더 많이(2)', '부부가 비슷하게(3)', '남편이 더 많이(4)', '남편(5)'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부에 의한 자기기입법을 사용하였다. 2003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50가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03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00부를 배포하여 이 중 645부가 회수되었으며, 자료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610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하여 SAS-PC program을 사용하였다. 5개의 가계재무관리 영역별로 Cronbach- α 를 계산한 결과 .830~.925로 나타나, 문항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분석대상가계의 사회통계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에 따라 가계재무관리의 각 영역별로 기대빈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수행하였다. 각 재무관리영역에 대해 관리행동을 하지 않는 가계와 부부가 따로 관리하는 가계를 제외한, 부부공동관리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역할분담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분석대상가계의 특성

<표 1>은 분석대상가계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총 분석대상가구 610가구 중 맞벌이가계는 335가계로 54.9%, 비맞벌이가계는 275가계로 45.1%였다. 맞벌이가계의 주부의 직업유형은 사무/전문직·전문기술직이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자영업이 20.6%였다. 전체가구의 월평균가계소득은 444.3만원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의 수치(294.0만원, 2003년)보다 다소 높았다.

<표 1> 분석대상가계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가구수(%)

변 수	집 단	전체(n=610)	맞벌이가계(n=335)	비맞벌이가계(n=275)
가구원수 (명)	평 균	3.66	3.58	3.77
가구주연령	평 균	44.8	42.9	46.7
주부직업	무직/전업주부	304(49.8)	43(12.8)	
	사무/전문, 전문기술직	188(30.8)	182(54.3)	
	경영/자영	77(12.6)	69(20.6)	
	단순노무직	41(6.7)	41(12.2)	
남편학력	고졸 이하	174(28.5)	96(28.7)	78(28.4)
	전문대졸 이하	99(16.2)	55(16.4)	44(16.0)
	4년제졸 이상	337(55.3)	184(54.9)	153(55.6)
남편직업	사무/전문, 전문기술직	255(41.8)	153(45.7)	102(37.1)
	경영/자영	251(41.2)	121(36.1)	130(47.3)
	단순노무직	104(17.1)	61(18.2)	43(15.6)
월평균가계소득 (만원)	평 균	444.3	500.3	376.1
월평균남편소득 (만원)	평 균	314.2	290.0	338.4
월평균아내소득 (만원)	평 균	101.1	184.1	0.0
월가계소비지출액(만원)	평 균	210.2	218.4	200.3
총자산 (만원)	평 균	25624.0	22561.0	29355.0
순자산 (만원)	평 균	23265.4	20199.0	27000.0
총부채액 (만원)	평 균	2358.7	2361.6	2355.1

<표 2>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재무계획

변수정의	전체(n=610)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가계의 예산 설정	7.7	38.7	15.1	27.5	4.9	4.3	2.1
은퇴 후(노후) 계획	5.1	20.0	9.0	46.1	10.8	8.9	0.2
주택마련 계획	4.8	17.9	8.7	49.0	11.3	8.7	0.0
장기목돈 마련 계획	13.1	25.7	10.0	39.8	5.6	5.7	0.0
저축에 관한 계획	2.1	31.3	14.3	36.9	7.7	6.7	1.0
투자에 관한 계획	10.5	16.7	8.7	38.4	14.6	10.7	0.5
위험대비 계획	4.9	27.2	14.9	37.1	8.9	6.6	0.5
부채에 관한 계획	20.8	17.9	6.7	33.8	11.0	9.2	0.7

2.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재무관리행동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는 재무계획, 소비/지출, 저축/투자, 위험관리, 신용관리의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재무계획

<표 2>는 재무계획에 대해 부부간 역할분담을 나타낸 표이다. 모든 항목에서 아내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계의 예산설정'의 경우 '주로 아내'가 하는 경우가 38.7%로 가장 높았고, 이 밖에 '장기목돈마련계획', '저축에 관한 계획', '위험대비계획'에 있어 아내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에 관한 계획'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편의 역할이 컸다. 49.0%의 부부가 '주택마련'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 후 계획' 또한 46.1%가 부부가 비슷한 비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표 3>은 재무계획영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역할 분담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재무계획영역의 8개 문항 중 유일하게 '저축에 관한 계획'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방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계의 33.1%가 '주로 아내'에 의해 '저축에 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한 반면, 비맞벌이가계는 29.1%로 4.0%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가계의 45%가 '주로 남편'이 저축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맞벌이가계는 95%로 나타나 맞벌이가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비맞벌이가계는 투자에 관한 계획에서 '주로 남편'이 수행한다는 비율이 13.8%인 반면 맞벌이가계는 8.1%로 격차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 맞벌이여부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재무계획

세부항목	맞벌이 가계(n=335)							비맞벌이 가계(n= 275)							x ²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가계의 예산 설정	7.5	39.1	16.4	26.3	5.1	2.7	3.0	8.0	37.5	13.5	29.1	4.7	6.2	1.1	8.39
은퇴 후(노후) 계획	6.3	21.5	9.6	43.6	11.3	7.5	0.3	3.6	18.2	3.4	49.1	10.2	10.6	0.0	6.75
주택마련 계획	4.5	20.3	8.1	47.2	12.5	7.5	0.0	9.5	51.3	9.8	9.5	51.3	9.5	0.0	5.14
장기목돈 마련 계획	14.6	27.5	11.3	37.0	5.4	4.2	0.0	11.3	23.6	8.4	43.3	5.8	7.6	0.0	8.18
저축에 관한 계획	2.1	33.1	15.5	36.7	6.3	4.5	1.8	2.2	29.1	12.7	37.1	9.5	9.5	0.0	14.11*
투자에 관한 계획	10.5	17.9	8.7	37.3	16.7	8.1	0.9	10.6	15.3	8.7	39.6	12.0	13.8	0.0	10.31
위험대비 계획	4.2	28.4	15.2	39.1	7.8	4.5	0.9	5.8	25.8	14.6	34.6	10.2	9.1	0.0	10.44
부채에 관한 계획	22.4	18.5	7.5	34.3	9.9	6.6	0.9	18.9	17.1	5.8	33.1	12.4	12.4	0.4	8.77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소비/지출

변수정의	전체(n=610)						
	해당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일상적인 생활비지출 결정	0.8	59.2	20.5	14.4	2.1	1.3	1.6
10만원이하 물품결정	1.0	55.4	21.3	16.2	1.2	0.8	4.1
경조금액 결정	0.5	22.8	8.9	46.6	9.5	6.7	5.1
주택구매 결정	4.1	12.6	5.7	54.9	12.8	9.7	0.2
자동차구매 결정	6.7	6.9	3.0	43.4	21.8	18.0	0.2
주요 가전제품 구매결정	3.1	28.2	17.4	41.6	5.4	4.3	0.0
가구구매관련 결정	3.6	30.8	19.7	38.9	3.6	3.3	0.2
사교육비 지출결정	18.2	35.9	19.0	24.1	1.5	1.3	0.0
남편의 용돈관련사항 결정	4.1	30.2	7.4	22.1	10.7	18.9	6.7
자녀의 용돈관련사항 결정	25.9	41.0	9.7	17.2	2.8	3.0	0.5
가계부 작성	23.8	55.4	13.6	4.1	1.2	0.7	1.3
세금관련 영수증관리	3.1	63.0	15.6	8.5	4.3	4.9	0.7

2) 소비/지출

<표 4>는 소비/지출에 대해 부부간 역할분담을 나타낸 표이다. '일상적인 생활비지출 결정', '10만원이하 물품결정'과 같은 소액의 소비/지출에서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는 가구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부작성' 역시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는 가계가 55.4%였다. '주택구매결정'과 '자동차구매결정'과 같은 비교적 고가의 내구재인 경우 남편의 역할이 크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용돈관련사항 결정' 또한 남편의 역할이 타항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소비/지출영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역할분담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소비/지출영역의 12개 문항 중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방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절반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이었다.

'일상적인 생활비지출 결정', '10만원이하 물품결정'과 같은 소액의 소비/지출에서 비맞벌이가계가 맞벌이가계에 비해 '주로 아내'에 의해서 수행되는 가계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경조금액 지출결정'에서 '부부가 따로관리'를 하는 가계의 비율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맞벌이 가계가 많았다. 이는 맞벌이가계

의 경우 부부 모두 사회활동을 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경조비 지출도 각자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편의 용돈관련 사항 결정'은 맞벌이가계의 10.8%가 '부부가 따로관리'를 하는 반면, 비맞벌이가계는 1.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용돈관련사항 결정'에서 '주로 남편'이 재무수행을 하는 가계가 맞벌이가계에 비해 비맞벌이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결정', '자녀의 용돈관련 사항 결정'에서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맞벌이가계가 높았다. 이는 맞벌이경우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자녀가 없는 가계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의 용돈관련사항 결정'은 남편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컸는데, 특히 비맞벌이가계의 경우 '주로 아내'가 46.9%로 나타나 맞벌이가계의 36.1%보다 더 높았다.

비맞벌이가계는 '자동차구매 결정'에서 맞벌이가계보다 '주로 남편'이 수행하는 비율이 21.5%로 맞벌이가계의 15.2%보다 높긴 했으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맞벌이여부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소비/지출

세부항목	맞벌이 가계(n=335)							비맞벌이 가계(n= 275)							x ²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일상적인 생활비지출 결정	0.9	55.8	20.6	17.6	1.2	1.2	2.7	0.7	63.3	20.4	10.6	3.3	1.5	0.4	14.81*
10만원이하 물품결정	1.2	49.3	20.6	20.6	1.5	0.6	6.3	0.7	62.9	22.2	10.9	0.7	1.1	1.5	24.09**
경조금액 결정	0.6	20.6	9.3	48.4	7.8	5.1	8.4	0.4	25.5	8.4	44.4	11.6	8.7	1.1	23.46**
주택구매 결정	4.2	13.1	6.0	57.0	11.9	7.5	0.3	4.0	12.0	5.5	52.4	13.8	12.4	0.0	5.82
자동차구매 결정	7.5	7.5	3.0	44.2	22.4	15.2	0.3	5.8	6.2	2.9	42.6	21.1	21.5	0.0	5.25
주요가전제품 구매결정	3.6	25.1	18.5	43.6	5.1	4.2	0.0	2.6	32.0	16.0	39.3	5.8	4.4	0.0	4.48
가구구매관련 결정	3.9	29.3	20.0	40.9	3.9	1.8	0.3	3.3	32.7	19.3	36.4	3.3	5.1	0.0	7.58
사교육비 지출결정	22.4	31.9	20.3	23.6	1.2	0.6	0.0	13.1	40.7	17.5	24.7	1.8	2.2	0.0	14.44*
남편의 용돈관련사항 결정	4.2	29.9	8.1	22.7	8.7	15.8	10.8	4.0	30.6	6.6	21.5	13.1	22.6	1.8	24.93**
자녀의 용돈관련사항 결정	32.2	36.1	9.6	17.6	2.1	1.5	0.9	18.2	46.9	9.8	16.7	3.6	4.7	0.0	25.01**
가계부 작성	26.0	54.0	13.4	3.3	1.8	0.6	0.9	21.1	57.1	13.8	5.1	0.4	0.7	1.8	6.69
세금관련 영수증관리	3.3	62.4	14.0	10.8	4.5	4.2	0.9	2.9	63.6	17.5	5.8	4.0	5.8	0.4	7.10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6>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저축/투자

변수정의	전체(n=610)						
	해당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주식투자관련 결정	35.9	7.5	4.4	23.8	14.8	12.5	1.2
채권투자 관련 결정	42.8	7.1	2.6	23.8	12.0	11.2	0.7
부동산투자 관련 결정	23.0	9.2	3.3	35.9	13.8	14.6	0.3
금융기관 선택관련 결정	7.5	19.2	11.5	37.1	11.8	10.7	2.3
금융상품 결정	8.2	19.2	13.1	36.2	10.5	10.7	2.1
포트폴리오구성 결정	3.4	27.1	14.4	38.5	7.2	7.9	1.5
저축관련 자금관리	3.3	32.6	18.0	27.5	9.0	7.7	1.8
투자관련 자금관리	33.6	11.0	4.9	26.2	12.0	11.6	0.7

3) 저축/투자

<표 6>은 저축/투자에 대해 부부간 역할분담을 나타낸 표이다. '저축관련 자금관리'의 경우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는 가구가 32.6%였다. 반면 '금융기관 선택 관련 결정', '금융상품 결정', '포트폴리오구성 결정' 등에서 36.2%~38.5%가 '부부가 비슷'하게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하였다. '부동산투자 관련 결정'의 경우 35.9%가 '부부가 비슷'하다고 답한 경우가 35.9%로 채권이나 주식 투자관련 결정에 비해 부부공동의사결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융상품 관련 사항에 비해 '주식투자관련 결정'과 '부동산투자 관련 결정'의 경우 남편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는 저축/투자영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역할분담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저축/투자관련영역의 8개 문항 중 저축관련 문항인 '금융기관 저축관련 결정', '금융기관 선택 관련 결정', '금융상품내역 결정', '저축관련 자금관리'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방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맞벌이가계는 맞벌이가계에 비해 '주로 남편'이 저축행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금융기관 저축 관련 결정'에서 맞벌이가계가 5.1%, 비맞벌이가계가 14.2%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투자관련 영역인 '부동산투자 관련 결정', '투자관련 자금관리'에서 비맞벌이가계는 '주로 남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맞벌이가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투자관련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계는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맞벌이가계는 투자관련 재무관리행동에서 맞벌이가계에 비해 더 적극적이며, 남편의 참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맞벌이가계는 '주식투자 관련결정'과 '채권투자관련 결정'에서 맞벌이가계보다 '주로 남편'이 참여하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4) 위험관리

<표 8>은 위험관리에 대해 부부간 역할분담을 나타낸 표이다. '보험의 종류결정', '생명보험 관련 결정', '구체적인 계약조건

<표 7> 맞벌이여부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저축/투자

세부항목	맞벌이 가계(n=335)						비맞벌이 가계(n= 275)						x ²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주식투자관련 결정	36.7	7.5	4.8	24.8	15.5	9.0	1.8	34.9	7.6	4.0	22.6	13.8	16.7	0.4	10.97
채권투자 관련 결정	44.5	7.8	2.4	25.1	10.8	8.7	0.9	40.7	6.2	2.9	22.2	13.5	14.2	0.4	7.43
부동산투자 관련 결정	26.0	9.6	3.0	37.3	14.3	9.6	0.3	19.3	8.7	3.6	34.2	13.1	20.7	0.4	16.79*
금융기관 선택관련 결정	9.3	20.3	11.6	36.1	12.2	6.9	3.6	5.5	17.8	11.3	38.2	11.3	15.3	0.7	19.07**
금융상품결정	9.0	20.3	14.0	35.5	10.8	7.2	3.3	7.3	17.8	12.0	37.1	10.2	14.9	0.7	14.76*
포트폴리오구성 결정	3.6	29.6	14.6	37.9	6.6	5.4	2.4	3.3	24.0	14.2	39.3	8.0	10.9	0.4	12.36
저축관련 자금관리	4.2	32.5	20.9	26.9	8.1	4.8	2.7	2.2	32.7	14.6	28.4	10.2	11.3	0.7	17.58**
투자관련 자금관리	36.1	10.2	6.0	28.4	10.8	7.8	0.9	30.6	12.0	3.6	23.6	13.5	16.4	0.4	16.00*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8>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위험관리

변수정의	전체(n=610)						
	해당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보험의 종류결정	3.0	32.1	15.7	34.8	7.1	6.2	1.2
자동차보험 관련 결정	4.1	13.8	5.9	26.9	23.6	24.9	0.8
생명보험 관련 결정	8.4	26.6	12.6	37.2	7.4	6.9	1.0
구체적인 계약조건 결정	5.3	25.4	13.8	38.5	9.2	6.9	1.0
비상시 자금마련 결정	5.9	26.4	9.5	37.5	10.8	8.5	1.3
보험금 납입하기	2.8	48.7	15.6	19.5	5.3	6.4	1.8
보험증서 영수증 관리	3.3	57.4	16.7	11.6	4.8	4.8	1.5

<표 9> 맞벌이여부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위험관리

세부항목	맞벌이 가계(n=335)						비맞벌이 가계(n= 275)						x ²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보험의 종류결정	3.0	31.3	17.3	36.7	7.2	3.0	1.5	2.9	33.1	13.8	32.4	6.9	10.2	0.7	15.48*
자동차보험 관련 결정	5.4	15.2	6.9	23.9	25.7	21.5	1.5	2.6	12.0	4.7	30.6	21.1	29.1	0.0	16.70*
생명보험 관련 결정	7.2	27.2	13.1	39.4	5.7	6.3	1.2	9.8	25.8	12.0	34.6	9.5	7.6	0.7	6.16
구체적인 계약조건 결정	4.8	25.7	15.2	41.2	7.2	4.5	1.5	5.8	25.1	12.0	35.3	11.6	9.8	0.4	14.35*
비상시 자금마련 결정	5.4	27.8	9.0	40.0	9.9	6.0	2.1	6.6	24.7	10.2	34.6	12.0	11.6	0.4	12.08
보험금 납입하기	3.0	48.7	16.1	19.1	6.0	4.2	3.0	2.6	48.7	14.9	20.0	4.4	9.1	0.4	12.51
보험증서 영수증 관리	3.6	55.8	17.9	11.3	5.1	3.9	2.4	2.9	59.3	15.3	12.0	4.4	5.8	0.4	6.75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결정', '비상시 자금마련 결정' 등의 경우 30%이상이 '부부가 비슷'하게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하여,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납입하기', '보험증서 영수증 관리'와 같은 보험납입 관련 업무에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는 가구가 각기 48.7%와 57.4%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보험의 종류결정' 역시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는 가계가 32.1%였다. 반면 '자동차 구매'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 관련 결정' 또한 남편의 역할이 타 세부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주로 남편' 또는 '남편이

더 많이'라고 답한 가계가 48.5%였다.

<표 9>는 위험관리영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역할 분담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위험관리영역의 7개 문항 중 '보험 관련 결정', '보험의 종류결정', '자동차보험 관련 결정', '구체적인 계약조건 결정'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 분담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종류결정', '자동차보험 관련 결정'에서 '주로 남편'이 재무관리한다고 응답한 비맞벌이가계가 맞벌이가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가계는 '구체적인 계약조건 결정'

에서 '부부가 비슷하게' 결정한다는 비율이 41.2%로 비맞벌이 가계의 35.3%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여 해당항목에 대한 상호의 견교환이 맞벌이가계에서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신용관리

<표 10>은 신용관리에 대해 부부간 역할분담을 나타낸 표이다. '신용카드대금 청구서 관리', '신용카드대금 납입'과 같은 신용카드 관련 업무에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는 가구가 45.6%와 39.7%로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대출관련의사결정은 '부부가 비슷하게'라고 답한 가구가 많았는데, 특히 '대출관련'부분은 상대적으로 '주로 남편'이라고 답한 가구의 비율이 타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신용관리 부분은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관리'나 '신용카드 대금납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부부가 공동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신용관리영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역할분담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신용관리영역의 10개 문항 중 '사채관련 결정'과 '대출금 상환순서 정하기'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방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유형 결정'과 '대출금액 결정', '값는방법 결정', '금융기관 대출관련 결정'과 같은 대출·상환에 관련된 사항에서 비맞벌이가계는 '주로 남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가계의 비율이 맞벌이가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가계는 '신용카드 가입 결정'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 결정', '신용카드대금 납입'에서 '부부가 따로 관리'한다는 비율이 비맞벌이에 비해 높았는데, 예를 들면, '신용카드대금 납입'의 경우 맞벌이가계가 13.4%, 비맞벌이가계가 4.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 맞벌이여부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

<표 12>~<표 16>은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의 재무관리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비중을 재무계획, 소비/지출, 저축/투자, 위험관리, 부채관리의 5개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이다. '부부가 따로관리' 하거나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

<표 10>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신용관리

변수정의	전 체(n=610)						
	해당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주로 남편	부부 따로
대출유형 결정	19.5	11.0	6.2	38.9	11.2	13.0	0.3
대출금액 결정	18.0	12.3	5.3	40.5	10.0	13.8	0.2
값는방법 결정	17.9	14.1	7.5	38.7	9.5	12.1	0.2
금융기관 대출관련 결정	19.0	13.0	6.7	37.9	10.3	13.0	0.2
사채관련 결정	51.8	7.9	3.0	23.3	5.1	8.7	0.3
신용카드 가입 결정	7.9	15.9	9.8	39.0	5.3	8.2	13.9
신용카드 사용여부 결정	6.7	22.0	11.0	34.9	5.7	6.9	12.8
대출금 상환순서 정하기	16.2	18.5	11.2	38.5	5.3	8.9	1.5
신용카드대금 청구서 관리	6.7	45.6	16.2	15.9	3.8	5.6	6.2
신용카드대금 납입	6.6	39.7	13.6	18.7	5.1	6.9	9.5

<표 11> 맞벌이여부별 재무관리 역할분담 - 신용관리

세부항목	맞벌이 가계(n=335)					비맞벌이 가계(n= 275)					x ²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해당 없음	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	남편이 더 많이					
대출유형 결정	20.9	12.8	6.3	41.5	10.5	7.8	0.3	17.8	8.7	6.2	35.6	12.0	19.3	0.4	20.19**
대출금액 결정	18.8	15.2	4.8	43.3	9.0	9.0	0.0	17.1	8.7	5.8	37.1	11.3	19.6	0.4	21.72**
값는방법 결정	18.2	16.7	7.5	40.6	9.6	7.5	0.0	17.5	10.9	7.6	36.4	9.5	17.8	0.4	18.94**
금융기관 대출관련 결정	19.7	15.8	6.9	40.0	9.9	7.8	0.0	18.2	9.5	6.6	35.3	10.9	19.3	0.4	22.66**
사채관련 결정	54.6	6.6	3.0	23.5	4.5	6.6	0.3	48.4	9.5	2.9	21.8	5.8	11.3	0.4	7.61
대출금 상환순서 정하기	16.1	19.1	11.9	40.9	4.5	6.0	1.5	16.4	17.8	10.2	35.6	6.2	12.4	1.5	9.45
신용카드 가입 결정	6.9	17.6	10.2	37.0	4.2	5.1	19.1	9.1	13.8	9.5	41.5	6.6	12.0	7.6	27.86**
신용카드 사용여부 결정	6.6	24.5	12.2	32.5	3.3	4.2	16.7	6.9	18.9	9.5	37.8	8.7	10.2	8.0	29.11**
신용카드대금 청구서관리	6.9	43.3	17.0	15.2	3.3	5.1	9.3	6.6	48.4	15.3	16.7	4.4	6.2	2.6	13.08*
신용카드대금 납입	6.0	38.5	15.2	17.0	4.8	5.1	13.4	7.3	41.1	11.6	20.7	5.5	9.1	4.7	18.90**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였고, '주로 아내'에서 '주로 남편'이라고 답한 가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은 '주로 아내'에 의해서 재무관리가 이루어지며, 5점은 '주로 남편'에 의해서 재무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재무관리행동에서 아내의 역할비중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하며, 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역할비중이 커짐을 의미한다. 부부간 역할비중이 동일한 경우 평균점수는 3이다.

1) 재무계획

<표 12>는 재무계획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재무계획의 값들은 2.131에서 2.930에 걸쳐 분포함으로써 부부간 역할비중이 아내 쪽에 약간 치우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무계획행동에서 아내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 모두에서 '가계의 예산설정'이었고, 남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항목은 두 집단 모두 '투자에 관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계의 수치가 비맞벌이가계 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무계획에서 아내의 역할비중이 맞벌이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와 비맞벌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장기

목돈 마련 계획', '저축에 관한 계획', '부채에 관한 계획'이었다. '장기목돈 마련 계획'과 '저축에 관한 계획'은 맞벌이가계가 약 2.385점, 비맞벌이가계가 약 2.611점으로 맞벌이가계가 보다 적은 점수를 보여 맞벌이가계 아내의 재무계획에 대한 참여율이 비맞벌이가계 아내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에 관한 계획'은 맞벌이가계가 2.720점, 비맞벌이가계가 2.974점으로 비맞벌이가계 남편의 부채계획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비/지출

<표 13>은 소비/지출영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소비/지출영역의 값들은 1.372에서 3.442로 세부항목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다. 소비/지출행동에서 아내비중이 큰 항목은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 모두에서 '가계부 작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두 집단 모두 '자동차구매 결정'이고, 다음으로 '주택구매 결정'이었다. 맞벌이-비맞벌이를 막론하고, 소비/지출영역 중 아내중심인 것은 주로 소액지출, 사교육, 자녀용돈 관련 항목이었으며, 고액내구재, 경조비, 주택/자동차구매 관련된 재무관리행동에서 점차 남편의 역할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맞벌이여부별 아내와 남편의 재무관리 비중 - 재무계획 (평균 : 5점만점)

세부항목	전 체	맞벌이가계 (1)	비맞벌이가계 (2)	(1)-(2) (t-검증결과)
가계의 예산 설정	2.131	2.060	2.216	-0.156
은퇴 후(노후) 계획	2.784	2.719	2.860	-0.142
주택마련 계획	2.828	2.778	2.889	-0.111
장기목돈 마련 계획	2.489	2.385	2.611	-0.226*
저축에 관한 계획	2.425	2.307	2.565	-0.258*
투자에 관한 계획	2.930	2.869	3.004	-0.135
위험대비 계획	2.499	2.418	2.598	-0.180
부채에 관한 계획	2.833	2.720	2.964	-0.244*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13> 맞벌이여부별 아내와 남편의 재무관리 비중 - 소비/지출 (평균 : 5점만점)

세부항목	전 체	맞벌이가계 (1)	비맞벌이가계 (2)	(1)-(2) (t-검증결과)
일상적인 생활비지출 결정	1.625	1.666	1.577	0.088
10만원 이하 물품결정	1.637	1.742	1.517	0.225**
경조금액 결정	2.667	2.643	2.694	-0.051
주택구매 결정	3.012	2.944	3.095	-0.151
자동차구매 결정	3.442	3.379	3.517	-0.139
주요가전제품 구매결정	2.382	2.427	2.328	0.099
가구구매관련 결정	2.261	2.259	2.263	-0.005
사교육비 지출결정	1.940	1.946	1.933	0.013
남편의 용돈관련사항 결정	2.783	2.677	2.900	-0.222
자녀의 용돈관련사항 결정	1.873	1.853	1.893	-0.041
가계부 작성	1.372	1.380	1.363	0.016
세금관련 영수증관리	1.676	1.685	1.665	0.020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소비/지출영역의 12개 세부항목 중 맞벌이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유일하게 '10만원 이하 물품결정'으로 비맞벌이가계의 수치가 1.517로 맞벌이가계의 1.74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비맞벌이가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비중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미루어 볼 때 여타 재무관리 영역에 비해 소비/지출관리에 있어서 맞벌이여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저축/투자

<표 14>는 저축/투자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저축/투자행동의 수치를 살펴보면 다수 항목에서 3.0이 넘는 수치를 보여 여타영역들에 비해 저축/투자행동에 있어서 남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편의 비중이 큰 항목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관련항목들이었다.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아내의 참여비중이 높음으로써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의 수치의 차는 (-)를 나타내었다.

맞벌이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총 7개였다. '저축·투자·보험·지출간의 할당결정'은 맞벌이가계가 2.400점, 비맞벌이가계가 2.664점으로 비맞벌이가계가 맞벌이가계에 비해 남편의 역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저축관련 행동으로는 '금융기관 선택관련 결정', '금융상품내역 결정', '저축관련 자금관리'에서 비맞벌

이가계가 맞벌이가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즉 이들 항목에 대한 남편의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했다.

투자관련 행동인 '채권투자 관련 결정', '부동산투자 관련 결정', '투자관련 자금관리'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가계의 수치가 비맞벌이가계의 수치에 비해 적음으로써, 맞벌이가계의 아내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해당항목들에 대해 더 높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위험관리

<표 15>는 위험관리영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위험관리영역은 세부항목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증서 영수증 관리'는 1.769로 가장 아내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자동차 보험 관련 결정'은 3.421로 남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추이는 맞벌이여부와 상관없어서, 맞벌이·비맞벌이 집단 모두 남편과 비교해 아내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험증서 영수증 관리'였으며, 남편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항목은 '자동차보험 관련 결정'이었다.

위험관리의 총 7개 문항 중 맞벌이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구체적인 계약조건 결정'이었다. 맞벌이가계가 2.462점으로 비맞벌이가계의 2.671점보다 적은 점수를 보여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아내의 역할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맞벌이여부별 아내와 남편의 재무관리 비중 - 저축/투자 (평균 : 5점만점)

세부항목	전 체	맞벌이가계 (1)	비맞벌이가계 (2)	(1)-(2) (t-검증결과)
주식투자관련 결정	3.320	3.223	3.433	-0.209
채권투자 관련 결정	3.310	3.186	3.451	-0.265*
부동산투자 관련 결정	3.278	3.154	3.416	-0.262*
금융기관 선택관련 결정	2.815	2.699	2.946	-0.247*
금융상품 결정	2.481	2.663	2.917	-0.254*
포트폴리오구성 결정	2.521	2.400	2.664	-0.264**
저축관련 자금관리	2.380	2.266	2.513	-0.247*
투자관련 자금관리	3.127	3.000	3.268	-0.268*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15> 맞벌이여부별 아내와 남편의 재무관리 비중 - 위험관리 (평균 : 5점만점)

세부항목	전 체	맞벌이가계 (1)	비맞벌이가계 (2)	(1)-(2) (t-검증결과)
보험의 종류결정	2.369	2.300	2.453	-0.153
자동차보험 관련 결정	3.421	3.337	3.519	-0.182
생명보험 관련 결정	2.508	2.463	2.565	-0.102
구체적인 계약조건 결정	2.556	2.462	2.671	-0.209*
비상시 자금마련 결정	2.629	2.539	2.788	-0.200
보험금 납입하기	2.005	1.946	2.075	-0.129
보험증서 영수증 관리	1.769	1.759	1.782	-0.023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16> 맞벌이여부별 아내와 남편의 재무관리 비중 - 신용관리 (평균 : 5점만점)

세부항목	전 체	맞벌이가계 (1)	비맞벌이가계 (2)	(1)-(2) (t-검증결과)
대출유형 결정	3.110	2.924	3.329	-0.405**
대출금액 결정	3.094	2.897	3.330	-0.433**
갚는방법 결정	2.976	2.799	3.190	-0.391**
금융기관 대출관련 결정	3.045	2.836	3.295	-0.458**
사채관련 결정	3.079	3.033	3.128	-0.095
대출금 상환순서 정하기	2.693	2.591	2.819	-0.228*
신용카드 가입 결정	2.744	2.581	2.921	-0.341**
신용카드사용여부 결정	2.560	2.354	2.786	-0.432**
신용카드대금 청구서 관리	1.938	1.925	1.952	-0.027
신용카드 대금 납입	2.117	2.041	2.203	-0.162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함

5) 신용관리

<표 16>은 신용관리영역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대출유형 결정’, ‘대출금액결정’ 등 대출관련 세부항목의 경우 3.0이 넘는 수치를 보여 아내에 비해 남편의 참여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신용카드대금 청구서 관리’는 2.0에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아내의 참여비중이 높아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의 수치의 차는 (-)를 보였으며, 아내의 비중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신용카드 청구서 관리’로 2.0이 못미치는 수치였다.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인 문항은 7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대출관련 문항으로는 ‘대출유형 결정’과 ‘대출금액 결정’, ‘금융기관 대출관련 결정’, ‘대출금 상환순서 정하기’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아내의 참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출금액 결정’에서 맞벌이가계가 2.897점, 비맞벌이가계가 3.330점으로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항인 ‘신용카드 가입 결정’과 ‘신용카드사용여부 결정’이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의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맞벌이가계의 평균값이 비맞벌이가계보다 낮아 아내의 참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맞벌이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무관리행동을 재무계획, 소득 및 지출, 저축 및 투자, 위험관리, 신용관리 등 5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조사한 610가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AS-PC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포, χ^2 -test, t-test를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를 비교한 재무계획영역의 경우 8개 문항 중 유일하게 ‘저축에 관한 계획’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가계에서 ‘주로 아내’에 의해서 수행되는 가계의 비율이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높았다. 소비/지출영역에서 맞벌이가계는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소액의 소비/지출행동에서 ‘주로 아내’가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경조금과 관련된 문항에서 ‘부부가 따로 관리’를 하는 비율이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관련 문항에서는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저축/투자영역에서 비맞벌이가계는 맞벌이가계에 비해 ‘주로 남편’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가 따로 관리’하는 비율이 맞벌이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험관리영역에서 보험관련사항에 대해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계약조건 결정’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맞벌이가계에 비해 비맞벌이가계가 ‘주로 남편’에 의해 수행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관리영역에서 대출과 상환에 관련 된 문항에서 ‘주로 남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맞벌이가계의 비율이 맞벌이가계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부부가 따로 관리’하는 비율이 맞벌이가계에서 높게 나왔다.

둘째, 맞벌이여부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을 t-tes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내가 더 많은 비중으로 재무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역할비중이 가장 큰 영역은 소비/지출영역의 소액지출결정에 관한문항과 위험관리영역에서 보험금 납입과 영수증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문항이었고, 남편의 역할비중이 큰 항목은 자동차와 투자관련 사항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0만원이하 물품결정’을 제외한 유의미한 모든 문항에서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아내의 역할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본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재무관리를 영역별로 구분하여서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가계의 재무관리는 재무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이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실질적인 영역별로 구분하였는데, 즉 재무계획, 소비/지출, 저축/투자, 위험관리, 신용관리 등 5개였다. 기존의 체계론을 적용한 많은 연구(계선자·유을용, 1999; 김효정, 1999; 이상협, 1999; 임정빈 등 1998)에서 재무관리행동을 계획과 수행 또는 평가의 차원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측정은 가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재무영역에 대한 행동들이 측정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인 재무관리행동의 측면을 다루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정운영·황덕순·홍은실, 2002). 이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리행동 영역을 세분화, 구체화함으로써 재무관리측정 방법의 한 형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계재무관리 행태를 보다 현실성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재무관리행동을 크게 재무계획과 재무수행에서 4가지 영역, 즉 소득과 지출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위험관리, 신용관리의 총 5개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무관련 서적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관련 책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류형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소비자 및 관련 기업에서 활용하는데 용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영역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영역별로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남편, 아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서 문항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역할분담이 큰 항목은 소액지출관리, 가계부작성, 각종 영수증 관리, 자녀관련 사항, 각종 청구서 납입, 신용카드 청구서 관리, 등 일반관리와 관계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역할분담이 큰 항목은 자동차 관련 사항, 투자관련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계 내에서 영역별·구체적인 행동별로 전문화된 재무관리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만약 재무관리행동교육이 각 영역별로 우위를 갖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재무관리행동이 가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셋째,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혼자가 취업을 하는 맞벌이가계가 늘어가는 시기에 부부간의 재무관리 역할분담을 연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이 아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여부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가계의 아내는

소액지출결정에서 비맞벌이가계의 아내보다 적은 관여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주택과 같은 주요내구재와 투자, 대출과 같은 중요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가계의 경우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가사노동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편중심의 가계문화를 조금 탈피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서 맞벌이가계의 아내의 참여가 비맞벌이가계보다 높은 것은 아내의 소득자원이 부부의 평등한 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향후 맞벌이가계의 증가를 예상했을 때,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조금액과 신용카드관련 재무관리의 경우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맞벌이가계가 '부부가 따로관리'하는 비율이 여타 문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맞벌이가계의 경우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지수(1997)의 연구에서 신용카드사용에서 부부가 각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며, 이에 일부 맞벌이가계에서 위의 재무관리행동은 더 이상 가계의 재무관리가 아닌 개인의 재무관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에서 부부가 공동 관리하는 가계와 따로 관리하는 가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비맞벌이가계를 전통적인 가계, 맞벌이가계를 비전통적인 가계로 본다면, 두 가계의 비교 연구는 시대변화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의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 응답자를 각 가계의 아내로 한정함에 따라 연구결과 아내의 역할분담이 큰 쪽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남편의 응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수경(1984). **취업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선자(2000).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95-111.
- 계선자·박혜성(2000). 도시주부의 자산관리태도·자산적정인지도에 따른 노후경제대책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29-45.
- 계선자·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50.
- 계선자·정미선(2007).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123-144.

- 고보선 · 이영호 · 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45-58.
- 고보선 · 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제와 가계재정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25-138.
- 고보선 · 임정빈(199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 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59-77.
- 구선주 · 박연 · 박은희 · 오원정 · 오은진 · 이수영 · 조정민 (1997). 부부권력 유형의 분석. **생활과학**, 30, 94-99.
- 김미혜(1987). **취업주부가정의 가계구조 및 가계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2003). 충북지역 가계의 재무관리 실태 및 평가. **한국생활 과학회지**, 12(1), 39-52.
- 김정훈(1997). 맞벌이 주부의 취업선호 인식과 가계관리권 유형에 따른 가계재정 의사소통과 재정권력 평등도 인지. **한국생활과학회지**, 6(1), 29-39.
- 김현정(1992). 30대 주부의 취업유무와 가정특성이 가계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참여도와 재정복지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은(1986).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24(4), 179-188.
- 김효숙(1988). 도시 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9).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제논집**, 14(3), 119-132.
- 김효정(2000). 체제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6.
- 김희순 · 최현자(2000). 米麥농가 부부의 노동시간과 노동분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13.
- 문소정(1995). **가족과 경제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135-165.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문숙재 · 조성은(1993). 구매의사결정시 가족의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93-106.
-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배희선 · 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 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 손현숙(1993). **부부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미 · 이기영(1998). 자산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6(4), 221-232.
- 안영애 · 임정빈(1987). 가정의 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 생활과학연구**, 5, 249-275.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165-182.
- 양세정(1998).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측정 및 맞벌이 요인.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 변화와 추이**. 통계청. 107-141.
- 양세정(2000). 맞벌이가구의 부채보유형태에 관한 분석. **상명대 사회과학연구**, 13, 61-80.
- 양경아(1992). 남편과 부인의 금전관리 태도와 행동이 부부의 재정관리 일치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태평(1993). **우리나라 부부의 구매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춘 외5(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 이상협(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41-153.
- 이선형(1995).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형 · 이연숙(1997). 노인단독 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31-43.
- 이성희 · 김태현(1989).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 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09-125.
- 이연숙 · 양세정 · 주인숙(2000). **가계재무관리의 이해**. 학지사.
- 이정우 · 강기연(1994). 취업주부의 역할관리 능력과 가정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4, 181-206.
- 이정우 · 강기연(2000). 도시 주부의 공평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합산적/총체적 측정방법의 적용. **대한 가정학회지**, 38(5), 41-55.
- 이정우 · 김규원(1986). 저소득층 취업주부 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서울시 · 성남시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24(4), 163-177.
- 이정우 · 정진희(1999). 도시 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51-66.
- 이창규(1994). **가족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 김윤경(1983). 가정생활의 의사결정 행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3), 115-130.
- 임정빈 · 문숙재 · 이기영 · 이연숙 · 지영숙(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장덕순(1994).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희(2000).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 소비지출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93-108.

- 정운영 · 황덕순 · 홍은실(2002).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25-138.
- 정운영 · 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 :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2), 115-130.
- 한지수 · 이연숙(1998). 도시 맞벌이부부의 금전관리와 경제생활 주도권 유형의 측정방법 및 실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14.
- 한지수(1997). 도시 맞벌이 부부의 금전관리유형. *경제생활주도권과 경제생활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실 · 황덕순(2002). 여대생 소비자의 목표중심적 가치가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175-187.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홍향숙 · 이종혜(1999). 개인 · 가계 ·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2(1), 12-24.
- 통계청홈페이지 www.kosis.go.kr
- Blood, R.O. & Wolfe, D.M.(1960). *Husbands and Wives*, N.Y.: Free press.
-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ed: Allyn and bacon. Inc.
- Diane M. Mcconocha. Shirlee A. Tully, & Walther, C.H.(1993). Household Money Management: Recognizing Non-traditional couple,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7(2), 258-283.
- Edwards, M.(1981). Financial arrangements within families. *Social Security Journal*(Dec.), 1-16.
- Fitzsimmons, V.S.(1988). Family money management in one-earner and two-earner families. *Proceedings of the 34th ACCI Annual Con-ferences*, Chicago, Illinois, April 4-9, 145.
- Fitzsimmons, V.S., Hira, T.K., Bauer, J.W. & Hafstrom, J.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4.
- Godwin, D.D. & Carroll, D.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 of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Pahl, J.(1989). *Money and Marriage*. N.Y.: St. Martin's Press.
- Parrotta, J.L. & Johnson, P.J.(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 Porter, N.M & Garman, E.T.(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35-164.
- Scannell, E.(1990). Dairl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133-146.
-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접수일 : 2008년 09월 15일

심사일 : 2008년 09월 29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28일